(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29–52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0.10.47.29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레위기 6:18하와 27상 번역에 대한 제언

노세영*

1. 들어가면서

כל אשר־יגע בהם יקדש (레 6:18하)
כל אשר־יגע בבשׂרה יקדש (레 6:27상)

레위기 6:18하반과 6:27상반에 나타난 이 문구는 출애굽기 29:37과 30:29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1] 현재 한국 교회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18하반을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라고 번역하였고 27상반은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현대어 번역 성경들이나 학자들은 이 문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우리말 『표준』과 『새번역』에서도 『개역개정』과 비슷하게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하여 יקדש의 주어를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에 『공동』과 『공동개정』에서는 "이 예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번역함으로써 יקדש의 주어는 사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들도 그 표현에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말 성경들과 비

* Drew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 교수. syroh@stu.ac.kr. 이 논문은 2019학년도 2학기와 2020학년도 1학기 서울신학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6:18과 27절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각각 6:11과 20절에 해당한다. 이하 본문의 구절이 마소라 본문과 상이하더라도 『개역개정』의 구절을 따라 표시한다. 본 소고에서는 출 29:37과 30:29에 관하여는 지면상 논의하지 않지만, 레위기의 본문을 통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슷하게 크게 두 가지 번역으로 나누어진다. KJV, NJK, NAS, NJB, RSV 등은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면, NIV, TNK, NRS 등은 '그것들에 접촉하는 것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들에 의하면 번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히브리어의 כל이 사물이나 사람 혹은 사물과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יקדש는 위에서 소개한 모든 번역에서 '거룩할 것이다' 혹은 '거룩하게 되다'로 번역하여 번역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레위기를 주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כל에 대한 이해에 따라 구분된다. 노트(Martin Noth),[2] 웬함(G. J. Wenham),[3] 김덕중[4] 등과 같은 학자들은 כל을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밀그롬(Jacob Milgrom),[5] 키우치(Nobuyoshi Kiuchi),[6] 정중호[7] 등은 사물(anything/whatever)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구를 이해하는 것은 כ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1995년 발행된 CEV에서는 이 문구의 번역이 어렵다는 각주와 함께 '그들은 그것을 만지기 전에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서 가야만 한다'("they must go through a ceremony to be made holy before touching it")라고 번역하면서 이는 한 가지 가능성 있는 번역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레빈(Baruch A. Levine)도 '이것을 만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Anyone who is to touch these must be in a holy state")라고 번역하도록 제안하였다.[8] 레빈의 견해에 대하여 하틀리(John E. Hartley)와 김경열도 레빈의 제안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 이 번역에 따르면 성물을 통하여 거룩이 전염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

2) Martin Noth, *Leviticus: A Commentary*, revised ed., J. E. Anderson, trans.,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50.

3)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9), 20, 121.

4) 김덕중,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용인: 킹덤북스, 2011), 142-143.

5) Jacob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444-456.

6) Nobuyoshi Kiuchi, *Leviticus*,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3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7), 119.

7)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1999), 121.

8) Baruch A. Levine,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37-38. 밀그롬(Jacob Milgrom)은 레빈(Baruch A. Levine)이 יקדש를 "shall be pure/purify oneself"의 의미를 가진 미래 수동태(ἁγιασθήσεται)로 번역한 LXX를 따라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만 한다'고 번역하였다고 주장한다. Jacob Milgrom, *Leviticus 1-16*, 445.

9)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97; 김경열, "구약의 제의체계에서 거룩은 전염성을 갖는가?", 「한국개혁신학」 64 (2019), 117.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만 성물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יקדש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편, 골만(Frank H. Gorman Jr.)은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어느 번역이 옳은지에 대하여는 그 대답을 보류한다.[10]

그렇다면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서 더 적절한 것일까? 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의하면 문구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 즉 כל과 יקדש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밀그롬이나 레빈 등이 놓치고 있는 동사 נגע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נגע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כל과 יקדש의 의미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밀그롬과는 다른 입장에서 앞에서 제시한 세 단어에 관한 연구와 레위기가 가진 거룩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연구사

각 단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거룩의 전염성과 본문의 번역에 관한 학자들의 논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란(Menahem Haran)은 출애굽기 29:37과 30:29를 근거로 부정이 전염성을 갖고 있듯이 성소의 제단이나 기구 등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거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1] 하란은 이어서 전염성을 가진 거룩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전염성 있는 거룩은 진영의 가장 중앙, 즉 성막에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런 거룩을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서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예식에 대하여 듣지 못한다. 이러한 거룩을 모든 접촉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룩과 접촉하는 사람은 하늘의 손에 의해 즉각적인 죽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 4:15를 보라) … 거룩과 접촉하게 된 사물도 성막의 기구와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며 다른 사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단계가 밟아져야 한다. 번제단과 접촉했던 고라와 그의 동

10) Frank H. Gorman Jr., *Divine Presence and Community: A Commentary on the Book of Leviticus*, IT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7), 47.

11) Menahem Haran, "The Priestly Image of the Tabernacl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6 (1965), 217; idem, *Temples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rael: An Inquiry into Biblical Cult Phenomena and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Priestly School* (Winona Lake: Eisenbrauns, 1985), 176.

> 료들에 속한 향로들도 번제단 자체와 같이 거룩하게 되었기에 그 거룩성을 제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것들은 죄와 재난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되었지만 성막 지역으로부터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12]

하란의 입장과는 달리 레빈은 레위기 6:18하반에 나오는 문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יקדש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련된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와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만 한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하란을 비롯한 대부분 학자는 어떤 거룩한 실체와의 접촉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한다.[13] 그렇지만 레빈은 거룩이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우며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성물과의 접촉 이전에 있어야 할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14] 그는 거룩이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비평을 하면서 학개 2:11-13을 근거로 거룩은 부정이 갖는 전염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15] 따라서 레빈은 '이것들과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6:27; 출애굽기 29:37; 30:29의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보다는, 거룩한 것에 접촉하기 전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16]

한편, 밀그롬은 이러한 레빈의 주장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평한다. 첫째, 동사 יקדש의 잠재적 주어는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다. 둘째,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제사장들이 יקדש의 주어라면 '(성물에) 접촉하는 모든 이들(제사장들)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산출하는 동사 יקרב를 기대하게 된다. 셋째, קדש의 칼 미완료는 '거룩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없다. 넷째, 학개 2:11-13에서 제사장이 대답한 바와 같이 거룩이 옷에 의하여 전달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 말은 오히려 거룩은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염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17] 레

---

12) Menahem Haran, *Temples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rael*, 176.
13) Baruch A. Levine, *Leviticus*, 37.
14) Baruch A. Levine, "The Language of Holiness: Perceptions of the Sacred in the Hebrew Bible", Michael Patrick O'Connor and David Noel Freedman eds., *Backgrounds for the Bible* (Winona Lake: Eisenbrauns, 1987), 246.
15) Baruch A. Levine, *Leviticus*, 37-38.
16) Ibid.
17) Jacob Milgrom, *Leviticus 1-16*, 445.

빈에 대한 이런 비평적 입장에 근거하여 밀그롬은 6:18하반에 나오는 이 문구는 '그것들에 접촉하는 무엇이든지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번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거룩한 소제물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성소에 속한 것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였다.[18] 다른 한편 김경열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거룩의 전염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몇 본문(레 6:24-30; 학 2:11-14; 겔 44:19; 46:20)들을 분석하면서 위의 본문을 비롯하여 구약의 어느 곳에서도 거룩이 전염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레위기 6:18하반과 27상반에 나타난 이 문구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사람이 거룩해야 한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3. 본문 이해

위에서 살펴본 두 유대인 학자 레빈과 밀그롬의 논쟁은 יקדש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문구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한 두 구절의 문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6:18하반은 소제물에 대한 규례에 속해 있다. 기본적으로 헌제자가 소제물로 가지고 온 סלת(솔레트, 밀가루)[20] 중에서 한 움큼의 '솔레트'와 기름과 유향은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되 나머지 '솔레트'는 제사장을 위한 소득이다. 이는 처음부터 한 움큼을 제외한 '솔레트'가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문(6:17)은 야웨는 헌제자가 가지고 온 모든 소제물을 먼저 받은 다음에 태워서 드린 한 움큼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을 말한다(삼상 2:16 참조). 따라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소제물은 '거룩한 것 중의 거룩한 것'이다. 이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장소, 즉 회막 뜰에서만 먹어야 한다(레 10:12 참조). 곧, 본문은 제사장이 먹는 소제물이 왜 지극히 거룩한

18) Ibid., 403. 키우치(Nobuyoshi Kiuchi)도 밀그롬의 견해에 동의한다. Nobuyoshi Kiuchi, *Leviticus*, 125.

19) 김경열도 그의 글, "구약의 제의체계에서 거룩은 전염성을 갖는가?", 108-147에서 본 소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처럼 위 문구는 성물과 접촉하는 사람/사물의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방법론과 내용에서는 아주 다르다. 여기에서는 제사장 전승에 나타난 두 문구에 집중하며 밀그롬의 견해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김경열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20) 여기에서는 סלת의 의미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Baruch A. Levine, *Leviticus*, 10; Samuel E. Balentine, *Leviticu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30; Erhard S. Gerstenberger, *Leviticu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39.

것이며 어떻게 소제물이 그 거룩성을 유지하여 제사장의 음식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그리고 18하반절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을 먹는 규례의 결론으로 거룩한 소제물과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문구인 כל אשר־יגע בהם יקדש가 선포된다. 6:27상반의 경우도 성화제물[21]을 먹는 규례(6:24-30)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6:18하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시 대명사 הם 대신에 성화제물의 고기를 지칭하는 בשר(바사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27하반-28절에서 성화제물과 닿게 되는 각종 물건들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화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아론 후손의 모든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성화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따라서 위의 두 절에서 말하는 문구에 나오는 세 단어(כל, נגע, יקדש)는 모두 지극히 거룩한 제물(소제물, 성화제물)과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이 문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 단어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יקדש의 주어 כל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נגע의 용법은 무엇인가? 셋째는 יקדש의 의미가 무엇인가?

3.1. כל의 의미

첫째로 주어 כ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문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밀그롬도 כ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그의 주석에서 길게 논의한다.[22] 밀그롬은 적어도 제사장 전승(P)에서는 사람은 거룩에 의하여 전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거룩의 전염성에서 제사장 전승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에스겔 전승을 소개한다. 에스겔은 소제물과 제사장의 옷의 거룩이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말하고 있지만(46:20; 44:19), 제사장 전승에서는 제사장 옷에 있는 거룩이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밀그롬은 출애굽기 30:26-30에서 거룩하게 되는 대상에서 제사장의 옷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에스겔과는 달리 제사장의 옷은 거룩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3] 또한 거룩의 등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고대 전승을 받아들인 에스겔과는 달리 제사장 전승은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전적으로 고대 전승을 받아

21) 속죄제와 속건제를 각각 성화제사와 배상제사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저자의 다른 논문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노세영,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핫타트, 아샴,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 (2015), 7-29.

22) Jacob Milgrom, *Leviticus 1-16*, 446-456.

23) Ibid., 447.

들이지 않았다고 제안하였다.[24] 곧 제사장 전승은 번제단이 성막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거룩성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면(민 4:3-14) 에스겔은 번제단을 전체 성막의 중심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소와 번제단의 거룩성을 동격이라고 여겨 일반 평민들이 번제단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25]

이러한 입장에서 밀그롬은 제사장 전승에서는 거룩이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네 개의 본문을 제시한다. 첫째 본문은 레위기 5:14-16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야웨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한 경우를 다룬다. 죄를 범한 사람은 오직 성물에 대한 20%를 더하여 보상하고 배상제사를 드리게 되어있을 뿐 죄인에게서 거룩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희생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거룩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다.[26] 두 번째 본문은 학개 2:12이다. 밀그롬은 학개가 제사장에게 한 질문을 통하여 다음 세 가지 답을 추론한다. (1)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점, (2) 고기는 그의 거룩을 옷에는 전달하지만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 (3) 옷에 의하여 전염될 수 있는 물체로 떡, 국, 포도주, 기름 혹은 다른 음식물이 거론되지만, 집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품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은 거룩은 음식물에만 전달될 뿐이라는 점이다.[27] 세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30:26-29로 이 단락에서 열거된 번제단이나 성소 안의 기구 등과 접촉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결과는 제사장 문헌의 다른 전승, 즉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거룩에 접촉하게 되면 죽음에 직면한다는 전승과 충돌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거룩이 전염된다는 것과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거룩이 전염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8] 마지막 본문은 민수기 4:15이다. 이 본문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제사장들이 다 덮은 후에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갈 수 있으며 만약에 만지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다. 따라서 죽음과 거룩이 동시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룩과 접촉하였을 때에 죽음이 적용되고 사물이 거룩과 접촉하였을 때는 전염된다고 보았다. 밀그롬은 이를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매우 거룩한 것임도 불구하고 게르손 자

24) Ibid., 451-453.
25) Ibid., 452.
26) Ibid., 449.
27) Ibid., 449-450.
28) Ibid., 450.

손이 성막 휘장을 메고 갈 때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막의 휘장은 사람에 대한 전염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였다. 이 점에서 밀그롬은 성막을 옮길 때는 성막의 거룩의 전염성이 멈춘다고 본 하란의 가설[29]을 비평하였다.

밀그롬은 위의 모든 논의를 통하여 성물로 인한 거룩의 전염성은 시기와 전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고대 전승이나 고대 전승을 받아들인 에스겔의 경우에는 사람과 물체에게는 모두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번제단까지도 전염성을 가질 만큼 거룩한 기구라면, 제사장 전승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보거나 만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민 4:20)는 점에서는 고대 전승을 받아들이지만, 번제단이나 성소의 기구 혹은 제사장의 옷 등은 사람에게 거룩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개의 경우에는 거룩의 등급이 더 낮추어져 사람은 물론 음식을 제외한 다른 물체에도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사장 전승에 속해 있는 레위기 6:18, 27; 출애굽기 29:37; 30:26-29에서 성물로 인한 거룩의 전염은 오직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구절에 나타나는 כל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 접촉하는 모든 것은 …'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0]

과연 이 가설은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먼저 밀그롬이 사람은 거룩에 의해 전염되지 않는다고 이해한 네 개의 구절 중에서 제사장 전승에 속하지 않은 학개 2:12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로 레위기 5:14-16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웨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아는 일이다. 밀그롬은 이를 성소를 비롯한 성물을 부정하게 하는 것과 맹세와 관련된 신성모독이라고 정의하면서 5:14-19의 경우는 첫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제물과 성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31] 이러한 밀그롬의 견해는 성물에게 잘못을 범한 죄인에게서 거룩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희생제사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람에게 거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서로 대치된다. 왜냐하면 성물에게 잘못을 범한다는 것은 성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지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인에게서 거룩을 제거하는 어떤 제사도 요구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레위기 22:9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히브리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

29) Menahem Haran, *Temple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rael*, 179.
30) Jacob Milgrom, *Leviticus 1-16*, 455.
31) Ibid., 320-321.

리고 그것을 오염시킴으로 인해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죄를 짓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제사장이 성물에 가까이하여 먹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성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물을 오염시켜 부정하게 하는 죄를 지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밀그롬도 인정하듯이 거룩과 부정이 접촉했을 때 부정이 항상 이긴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민 19:11, 22 참조).[32]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물로 인하여 죄를 범한다는 것을 무자격자가 성물에 접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레 22:4-5), 거룩을 제거하는 어떤 희생제사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거룩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성물을 오염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거룩을 제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로 출애굽기 30:26-29와 민수기 4:15의 경우이다. 이 두 본문은 거룩과 접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죽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밀그롬이 거룩에 전염된다는 것과 거룩에 직면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거룩에 맞닥뜨렸을 경우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과 거룩에 의해 전염된다는 것을 동시에 양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민 4:15, 20; 17:13). 그렇지만 위의 본문들은 기본적으로 성물에 있는 거룩이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성물에 접촉하는 경우에 대한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수기 4:1-15에서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할 모든 기구는 이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기구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은 후에 멜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극히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에 접근하여 덮는 일은 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에게는 만지거나 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만약에 이를 어기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는 고핫 자손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갖는 거룩성의 등급이 다르므로 성물에 접근할 때에 자격도 다르다는 점을 증명한다. 만약에 이런 가설이 옳다면 민수기 4:21-28에 나오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서 이미 법궤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이 덮인 후에 휘장과 기타 기구들은 거룩의 정도가 레위인이 메고 갈 정도의 거룩으로 낮아졌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본문은 사람에게 거룩이 전달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정도에 따른 신

32) Ibid., 454.

분의 자격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그롬이 주장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 30:26-29의 경우에도 번제단을 비롯하여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을 제외하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비롯한 다른 기구들의 경우에 무자격자가 접촉하게 되면 민수기 4:15의 경우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지극히 '거룩한 것'(קדשׁ קדשׁים)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은 에스겔과 달리 제사장 전승에서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의 정도를 구별하는 밀그롬의 견해와도 대치된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사람이 성물과 접촉하였을 때는 죽음에 이를 뿐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에 의해 전염되지 않는다고 단순히 결론 내리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밀그롬의 견해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번제단과 성막 뜰의 기구와 접촉하였을 때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구절들이 사람에게는 거룩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성물에 접촉하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그롬의 이 견해는 단순히 יקדשׁ가 '거룩하게 되다'라고만 번역해야 한다는 근거에 서 있다. 만약에 이 구절에서 יקדשׁ를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번역하더라도 위의 세 구절의 문맥과 전혀 대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문맥에 더 맞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제사장 전승에서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보거나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거룩에 전염되는 경우는 없는 것일까?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거룩의 전염은 증명된다. 곧 일 년에 한 차례 맞게 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는 지성소에서 그가 행해야 할 성화제사의 모든 의식을 마친 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흰색의 리넨 옷을 벗어 회막에 둔다. 그리고 자신은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나머지 희생제사를 집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키우치는 목욕하는 것과 리넨 옷을 벗는 것은 전염된 거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론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낮은 단계의 거룩한 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발생한 부정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33] 그러나 성화제사를 집례하는 아론이

33) Nobuyoshi Kiuchi, *Leviticus*, 305.

자신과 그 집안에 대해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번제단이 있는 성막 뜰로 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속죄하기 위하여 다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리넨 옷을 벗거나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키우치의 견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내용이다. 성화제사와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고 목욕을 한 후 지정된 속옷과 리넨 옷을 입어야 한다. 이는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넨 옷을 벗는 것과 목욕하는 의식이 성화제사를 다 드린 후에 한 번 행해진다는 것은 아론이 가장 높은 단계의 거룩한 장소에서 낮은 단계의 거룩한 장소로 옮겨 갔기 때문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간 후 그에게 전염된 거룩을 씻어내기 위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흥미롭게도 밀그롬도 이 경우에 아론이 리넨 옷을 벗고 자신이 평소에 입던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나 목욕을 하는 의식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 전달된 거룩을 성화제사를 드린 후 제거하는 행위라고 이해하면서, 아론이 성화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가 제거한 부정 때문에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곧 아론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부정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다는 것이다.[34] 만약에 이 이해가 옳다면 비록 제사장 전승에서 사람이 거룩에 전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 한 번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람에게 거룩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밀그롬의 가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위에서 논의한 본문들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성물에 접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6:18하반과 27상반에서 말하는 כל에는 성물에 접촉할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3.2. 동사 נגע의 용법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동사 נגע의 용법이다. 밀그롬은 무엇과 접촉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נגע +ב는 '…와 접촉하다' 혹은 '…와 접촉하러 가까이 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할 뿐 이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으며[35] 다른 학자들도 본 소고가 다루려고 하는 문구와 관련하여 נגע에 대하여 다루지 않는다. 그렇지만 נגע에 대한 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에 다루게 될 יקדש의 의미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동사 נגע는 구약에서 150

34) Jacob Milgrom, *Leviticus 1-16*, 1048-1049.
35) Ibid., 446.

번이 나타나며 그 뜻은 기본적으로 '…와 접촉하다' 혹은 '…에 닿다'이다. 그리고 칼형으로 107번 쓰이며 그중에서 80번은 그 목적어가 전치사 ב와 함께 사용된다.[36] 또한 칼형으로 사용된 것의 거의 절반은 부정과 정결 등과 관련된 제사장 문헌에서 나타나며 נגע의 주어는 대부분 특정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난다.[37] 여기에서 본 소고와 관련하여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제의적 문맥에서 전치사 ב와 함께 사용된 목적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제의적 문맥에서 ב와 함께 נגע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데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경우이다.[38]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더욱 관심을 두게 되는 부분은 둘째로 נגע의 목적어가 성물과 관련된 경우이다. 본 소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구(레 6:18하, 27상)도 이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와 비슷하게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성물과 접촉하는 경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들에 대한 단어 연구가 본 소고에서 다루는 문구에 나타난 נגע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물과 관련되어 접촉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사장 전승에서 본 소고에서 다루는 문구가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성물이 사람이나 물체와 접촉하는(נגע) 예도 네 개의 구절에서 나타난다. 첫째와 둘째는 레위기 7:19와 21절이다. 이 두 경우는 평민들이 화목제물을 먹는 규례(레 7:11-21)에 속해 있다. 19절은 거룩한 화목제물(בשׂר)이 부정한 어떤 것(כל)에 접촉한(ב + נגע)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화목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불살라야 한다. 이미 화목제물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어서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절은 부정한 어떤 것(כל)에 접촉한(ב + נגע) 사람(נפשׁ)에 대한 것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거룩한 화목제물(בשׂר)을 먹어서는 안 되며 만약에 부정해진 상태에서 화목제물을 먹으면 끊어짐의 형벌[39]을 받게 된

36) L. Schwienhorst, "נָגַע nāga'; נֶגַע nega'", *TDOT*, vol. 9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8), 203.

37) Ibid., 205.

38) 여기에서는 지면상 부정과 접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논지 전개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부정과 접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물이나 사람의 주검(레 5:2; 11:26, 27, 31, 39; 민 19:11, 16, 22; 31:19), 유출병이 있는 사람(레 15:11, 19),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물건(레 15:5, 21, 22) 등.

39) 끊어짐(כרת)의 형벌의 의미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Donald John Wold, "The Meaning of the Biblical Penalty Karet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70); 노세영, "끊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제사장 전승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1:1 (2015), 9-32.

다고 규정한다. 곧, 부정한 어떤 것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거룩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정한 것이란 사람의 부정,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증한 어떤 물건 등이 여기에 속한다(21절). 19절은 화목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어떤 것과 접촉하여(נגע) 부정해져서 정결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경우라면 21절은 화목제물을 먹어야 할 사람의 자격에 대한 경우이다. 어쨌든 이 두 경우는 '동사 יקדש의 잠재적 주어는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 밀그롬의 견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יקדש의 주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부정한 상태로 성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물과 접촉하는 것이 사물이든 혹은 사람이든 정결/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 נגע가 성물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세 번째 구절은 레위기 12:4이다. 12장은 아이를 출산하여 부정해진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4절에서는 "…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כל־קדש)을 만지지도(ב + נגע) 말며 …"라고 규정함으로 산모가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곧,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산혈이 정결하게 되는 33일을 더하여 40일을 지나야 하며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은 경우의 두 배, 즉 80일을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산모는 성막으로 가서 번제와 성화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희생제사를 마친 후에야 마침내 산모는 출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성물을 만질(נגע) 수가 있게 된다. 네 번째 구절은 민수기 4:15로 고핫 자손들에게 그 임무를 담당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성물(הקדש)을 만지지(נגע) 말라'고 선포한다. 이 구절에 대하여는 이미 כל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었듯이 만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의 정도에 따른 자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동사 נגע가 성물과 접촉하는 경우와 연결되는 네 구절의 문맥이 모두 성물에 접촉하는 사람의 자격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נגע의 용법에 대한 간접적인 힌트를 준다고 여겨진다.

3.3. קדש의 특징

마지막으로 다루어져야 할 단어는 יקדש이다. 앞에서 이미 소개하였듯이 밀그롬은 여기에서 다루는 문구에 나타나는 קדש의 칼 미완료는 '거룩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 '거룩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40] 동시에 이 문구에서 כל이 사람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יקדש

40) Jacob Milgrom, *Leviticus 1-16*, 445.

는 '(접촉하는 어떤 물체이든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번역하면서 성물에 접촉하여 거룩하게 된 물체는 성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였다.[41]

그렇지만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전승에 나타난 제의적 부정과 제의적 거룩의 체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42] 레위기에 나타난 제의적 부정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것이며 다소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43] 제의적 부정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주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출산, 유출병, 악성 피부병 등에 일어나며[44] 그중에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것(레 11:32-44) 등과 같이 어느 순간 피할 수 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삶 속에서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5] 그리고 부정의 정도에 따라 하루,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지나 목욕이나 정결예식을 통하여 부정을 제거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정한 사람이 자신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따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부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회에 부정을 쌓게 만들고 마침내 지성소에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레 15:31; 16:16; 민 19:13, 20). 밀그롬도 성막에 접촉하지 않고도 부정의 힘은 성막에까지 이르러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정한다.[46] 또한 성막의 부정이 지속되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거룩하신 야웨 하나님은 부정한 성막이나 사회 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부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부정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7]

---

41) Ibid., 403.

42) 본 소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본문도 제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의적인 부정과 제의적 거룩에 대하여만 논의한다.

43) Jonathan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3.

44) 부정을 일으키는 근원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L. E. Toombs, "Clean and Unclean", *IDB*,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641; David P. Wright, "Unclean and Clean (OT)", David Noel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729-733.

45) Jonathan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24. 라이트(David P. Wright)는 피할 수 없는 부정을 허락된 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David P. Wright, "Unclean and Clean (OT)", 729-733.

46) Jacob Milgrom, "Israel's Sanctuary: The Priestly 'Picture of Doran Gray'", *Revue biblique* 83 (1976), 393-394.

47) Tikva Frymer-Kensky, "Pollution, Purification, and Purgation in Biblical Isarel",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404.

그렇다면 성물과 접촉하여 어떤 무언가가 거룩해졌다면 부정과 같은 형태의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일까? 기본적으로 거룩과 부정이 전염성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두 개념에서 사용되는 전염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키우치는 이에 대하여 '부정한 것과 접촉함으로 어디에서나 모든 물체나 사람이 오염되는 부정의 전염과는 달리 18절(레 6:18)에 나타난 거룩의 전염은 제한된 공간(거룩한 장소) 안에서만 일어난다.'[48]고 말한다. 키우치의 이런 견해는 부정에 의한 전염과 거룩에 의한 전염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동시에 제사장 전승에 나타난 제의적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제사장 전승에 나타난 제의적 체계는 거룩이 그 등급에 따라 나누어지고 각각의 거룩의 등급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의 등급은 장소, 시간, 신분에 따라 구별된다.[49] 따라서 무자격자가 지극히 거룩한 성물에 접촉하였을 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전염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50] 곧 무자격자가 성물에 접촉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물과 접촉할 때 죽음의 형벌에 이르지 않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물에 대한 거룩의 전염성은 어떨까? 제사장 전승에서 사물이 성물과 접촉함으로 거룩이 전달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레위기 6:27하-28에 의하면 옷이나 그릇 등이 성물에 닿았을 때 거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51]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밀그롬이 주장한 대로 성물로 인해 거룩해진 사물이 단순히 성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만약에 성소의 소유로 남는 것이라면 성물의 피로 인해 거룩해진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며

48) Nobuyoshi Kiuchi, *Leviticus*, 125.

49) J. G. Gammie,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89), 43; F. H. Gorman Jr., *The Ideology of Ritual: Space, Time, and Status in the Priestly Theology*, JSOTSupp. 91 (Sheffield: JSOT Press, 1990); idem, "Priestly Rituals of Founding: Time, Space, and Status", M. P. Graham, W. P. Brown, and J. K. Kuan eds., *History and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ur of John H. Hayes*, JSOTSupp. 173 (Sheffield: JSOT Press, 1993), 47-64.

50) Jacob Milgrom, *Leviticus 1-16*, 450, 453-454.

51) 하틀리(John E. Hartley)나 키우치 등과 같은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사물에 대하여 거룩을 제거하는 의식이라고 여긴다. 반면에 김경열은 밀그롬의 입장에 따라 속죄제물에만 나타나는 제거의식은 제단에 피를 뿌릴 때에 피가 제단의 부정에 오염되어 피와 고기가 부정하게 된 것이므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가 부정해졌다면 이미 뿌려진 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야웨께 드린 후 남은 속죄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며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다(레 6:25-26; 10:17 참조). 김경열, "구약의 제의 체계에서 거룩은 전염성을 갖는가?", 119-124.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깨뜨리고 유기의 경우에는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는 규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성물에 접촉한 물건들로부터 거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성물에 접촉하기 이전의 정결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인다. 만약에 이런 이해가 옳다면 비록 성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물과 같은 거룩을 지속해서 지니는 것은 허락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물과 접촉하여 거룩하게 된 사물이 그 상태로 다른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거룩이 전염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무엇일까? 위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거룩이 그 영역을 떠나 전염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었다. 적어도 제사장 전승에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경우만이 허락되었지만, 그 경우에도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성화제사가 끝나고 나면 리넨 옷을 벗고 목욕을 하여 거룩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는 부정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서 사회와 성막까지도 부정하게 하지만 결코 거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성물과 접촉하여 무언가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옳은 번역이라면 전염에 의한 거룩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흥미롭게도 대제사장이 성물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었을 때 그 거룩을 제거하는 정결의식이 필요하거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죽음이나 끊어짐의 형벌로 이어진다. 사물이 성물에 접촉하여 거룩하게 된 때도 사물의 종류에 따라 깨뜨려 버리거나 거룩을 제거하는 의식이 나타날 뿐 어떤 다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거룩의 전염성은 부정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적어도 레위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하며 거룩한 공동체는 성물에 의한 전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같은 등급의 거룩과의 전염을 제외하고는 거룩은 오히려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만 한다(레 10:10). 만약에 정결이나 거룩이 오염되었다면 발생한 부정의 등급에 따라 정결예식이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정결이나 거룩이 회복될 뿐이다.[52] 실제로 제사장 전승에는 전염에 의한 거룩의 의미를 알게 해 주는 경우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 영향에 대하여

52) 레 4-5장과 16장은 거룩하게 하는 희생제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희생제사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8-29.

도 침묵한다. 이런 가정이 옳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יקדש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번역보다는 레빈의 주장처럼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번역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레위기 6:14-7:10의 보조적 규례로 간주될 수 있는 레위기 22:1-16에 의하여 증명된다. 물론 레위기 22:1-16은 성결법전에 속한 것으로 6:14-7:10처럼 희생제사의 종류에 따른 성물을 먹는 규례를 말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6:14-7:10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2:1-16에 따르면 제사장이 몸이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성물에 '가까이 하면'(יקרב) 그는 כרת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3절). 9절에서는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오염시키면'(יחלל, 피엘형)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מות) 야웨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מקדשׁ, 피엘형)고 선포한다. 여기에서 6:18과 27절에서 사용된 נגע가 아닌 יקרב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성물에 대한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의도적으로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으로도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또한 거룩은 단순히 성물에 의한 전염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야웨에 의하여 완성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사 יקדש의 잠재적 주어는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레빈에 대한 밀그롬의 비평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곧 앞에서도 말했듯이(레 7:19-21 참조) 제사장이나 심지어는 물건도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물에 접촉하게 되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보다 중요한 원칙은 성물에 의한 전염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물에 접촉할 때에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제사장 전승에 속한 구절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1:5(히브리어 6절)[53]에도 יקדש가 나타난다.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장면에 속해 있다. 여기에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레 24:5-9 참조)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자격을 요구한다. 이때 다윗은 지난 사흘 동안 이들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릇이 יקדש (하다)'라고 대답한

53) 구약에서 קדשׁ의 3인칭 미완료가 사용된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네 번(출 29:37; 30:29; 레 6:18, 27)은 본 소고에서 다루는 문구와 같은 것들이며 두 번은 레 27:14와 신 22:9로 성물과의 접촉과 관련된 본문이 아니며 학 2:12에서는 전염과 관련이 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김경열은 이 본문에서 거룩이 전염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김경열, "구약의 제의체계에서 거룩은 전염성을 갖는가?", 124-130.

다.『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여기에서 '그들의 그릇(몸)이 성결할 것이다'라는 의미의 의문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문맥에서 יקדש는 그들은 지난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요구하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인다.

만약에 전염에 의한 거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룩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며 전염에 의한 거룩이 갖는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굳이 יקדש를 '거룩하게 되다'라고 번역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거룩에 대한 신학적 이해나 단어 연구 혹은 본문의 문맥에서도 יקדש를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세 단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몇 가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1) יקדש의 주어는 사물은 물론이고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2) 동사 נגע가 성물과 접촉할 때에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체의 자격과 관련된다. (3) 전염에 의한 거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부정에 의한 전염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오직 거룩은 희생제사와 정결예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4) 레위기 22:1-16은 제사장이 성물에 접촉할 때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 성물에 의한 전염에 대하여는 어떤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6:18하반과 27상반에서 말하는 문구는 '이것들(성물의 고기)에 접촉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물체이든지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6장의 두 경우에 כ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문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14-30은 제사장이 소제물과 성화제물을 먹는 규례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 문맥이 어떤 사물이 성물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물에 접촉할 때에 죽지 않기 위해 말하는 규례라는 점에서 성물과의 접촉의 대상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 두 문구는 '그것들(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4. 나가면서

지금까지 레위기 6:18하반과 6:27상반에 나타난 문구를 밀그롬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적절한지를 살펴보았

다. 특별히 이 문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세 단어의 용법을 중심으로 제사장 전승에 나타난 거룩의 신학적 의미와 함께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밀그롬은 네 개의 본문(레 5:14-16; 학 2:12; 출 30:26-29; 민 4:15)을 근거로 적어도 본 소고에서 논의하는 두 구절에 나타난 כל은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제사장 전승과 관련된 세 개의 본문(학 2:12 제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물과 접촉할 때에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사람이 성물과의 접촉 때문에 전염이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동사 נגע가 성물과 관련된 경우(레 7:19, 21; 12:4; 민 4:15)에서도 모든 경우가 성물과 접촉할 때의 자격과 관련이 되어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레위기 7:19에서는 성물이 부정한 사물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소개하고 21절에서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물과 접촉하면 끊어짐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은 성물이 접촉하게 되는 것이 사람과 사물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마지막으로 동사 יקדש의 용법에서도 성물과 접촉하여 거룩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제사장은 성화제사를 마치면서 거룩을 씻어내는 제의적 의식을 거쳐야 한다. 사물이 성물에 의하여 전염된 경우에도 사물은 거룩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거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거쳐야 한다(레 6:27-28). 이는 거룩이 전염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이 전염된다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성물이 부정과 접촉할 때 거룩은 오염된다. 또한 레위기 22:1-16에서 제사장이 성물에 접촉할 때 반드시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성물과 접촉하게 되는 제사장의 자격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제사장 전승에서 거룩은 명확하게 부정한 것이나 속된 것과 구별되어 있어야 하며(레 10:10) 이스라엘이 그 장소, 시간, 신분의 영역에서 오염되었을 때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무자격자가 성물과 접촉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거나 끊어짐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모든 논의를 통하여 볼 때 레위기 6:18하반과 27상반은 '그것들(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더 옳아 보인다.

<주제어>(Keywords)
레 6:18, 레 6:27, 거룩의 전염성, 부정의 전염성, 성물.
Lev 6:18, Lev 6:27, contagion of holiness, contagion of impurity, sancta.

(투고 일자: 2020년 7월 26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9월 4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경열, “구약의 제의체계에서 거룩은 전염성을 갖는가?”, 「한국개혁신학」 64 (2019), 108-147.

김덕중,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용인: 킹덤북스, 2011.

노세영, “끓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제사장 전승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1:1 (2015), 9-32.

노세영,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핫타트, 아샴,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 (2015), 7-29.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1999.

Balentine, S. E., *Leviticu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Frymer-Kensky, T., “Pollution, Purification, and Purgation in Biblical Israel”, C. L. Meyer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399-414.

Gammie, J. G.,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89.

Gerstenberger, E. S., *Leviticu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Gorman, J. H. Jr., *The Ideology of Ritual: Space, Time and Status in the Priestly Theology*, JSOTSupp. 91, Sheffield: JSOT Press, 1990.

Gorman, J. H. Jr., “Priestly Rituals of Founding: Time, Space, and Status”, M. P. Graham, W. P. Brown, and J. K. Kuan eds., *History and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ur of John H. Hayes*, JSOTSupp. 173, Sheffield: JSOT Press, 1993, 47-64.

Gorman, J. H. Jr., *Divine Presence and Community: A Commentary on the Book of Leviticus*, IT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7.

Haran, M., “The Priestly Image of the Tabernacl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6 (1965), 191-226.

Haran, M., *Temples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rael: An Inquiry into Biblical Cult Phenomena and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Priestly School*, Winona Lake: Eisenbrauns, 1985.

Hartley, J. E.,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Kiuchi, N., *Leviticus*,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3,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7.

Klawans, J.,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Levine, B. A., “The Language of Holiness: Perceptions of the Sacred in the Hebrew Bible”, M. P. O’Connor and D. N. Freedman, eds., *Backgrounds for the Bible*, Winona Lake: Eisenbrauns, 1987, 241-255.

Levine, B. A.,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Milgrom, J., “Israel’s Sanctuary: The Priestly ‘Picture of Doran Gray’”, *Revue biblique* 83 (1976), 390-399.

Milgrom, J.,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Noth, M., *Leviticus: A Commentary*, revised ed., J. E. Anderson, trans.,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Schwienhorst, L., “נָגַע nāgaʿ; נֶגַע negaʿ”, *TDOT*, vol. 9,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8, 203-209.

Toombs, L. E., “Clean and Unclean”, *IDB*,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641-648.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9.

Wright, D. P., “Unclean and Clean (OT)”, D. N.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729-741.

<Abstract>

A Proposal on the Translation of Leviticus 6:18b and 27a

Se Young Roh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proposes a more adequate translation of Leviticus 6:18b (כל אשר־יגע בהם יקדש [Heb. v. 11]) and 27a (כל אשר־יגע בבשרה יקדש [Heb. v. 20]) in response to J. Milgrom.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phrases, the usage of three terms (יקדש, נגע, כל) should be studied in the context of priestly tradition. Milgrom insists that כל is the subject of יקדש and cannot refer to a human because holiness does not transfer to humans as demonstrated in Leviticus 5:14-16, Haggai 2:12, Exodus 30:26-29, and Numbers 4:15. Accordingly, the phrase in Leviticus 6:11b has to be translated as 'whatever touches them shall become holy.' However, Leviticus 5:14-16, Exodus 30:26-29, and Numbers 4:15, which belong to priestly tradition, basically show that humans have to be qualified at the time of contact with sancta and are silent on whether or not holiness can be transferred to humans.

Four cases (Lev 7:19, 21; 12:4; Num 4:15) in which נגע refers to contact with sancta also show that נגע is used in the context of qualification at the time of contact with sancta. The use of יקדש is limited to the transfer of holiness. Holiness is transferred to the high priest, who is prepared to enter the most holy when entering the holy of holies on the Day of Atonement. He, however, has to desanctify after he is finished with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addition, the things which are contagious by sancta have to undergo rites to remove the holiness, which has been transferred (Lev 6:27-28 [Heb. vv. 20-21]). This means that the contagion of holiness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ntagion of impurity. If holiness is in contact with impurity, then holiness is polluted by impurity. These characteristics of holiness imply that יקדש can be translated as 'to be in a holy state.' Finally, Leviticus 22:1-16, which is auxiliary to Leviticus 6:14-30, regulates that the priests should be in a holy state when they come into contact with sancta.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se three terms, it can be proposed that the phrases in Leviticus 6:11b and 20a should be translated as 'whoever touches

these should be in a holy state' and 'whoever touches its flesh shall be in a holy state' respectively. Holiness has to be separated from impurity (Lev 10:10). When society is polluted by impurity, it has to be restored to a holy state by sacrifices not by contagion. If anyone who is not qualified comes into contact with sancta, he/she is given the penalty of death or being cut off.